

이 달의 책

사건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

1960년 북한 과학원 고고학연구소에서 발견 출간한 『삼국유사』를 대본으로 하여 오역을 바로잡고 사전을 곁들인 책이다. 본문의 모든 사진이 컬러이고 자상한 주가 달려 있어, 한글 해독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많은 번역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이 또 필요한 까닭은 역사사이면서 민족학의 보고이기도 한 삼국유사의 특징에도 기인하지만, 책이라는 것이 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지음
리성호 옮김 / 김문규 사진
A5신 264쪽
값 2000원
7월

동 속의 과일 줍기 - 석지명 스님의 세상 읽기

‘상구보리 하화종생’이라는 출가 수행자 본연의 자세와 딱 맞아떨어지는 ‘줍기’를 하는 지명 스님이, 그간 여러 매체에 써 온 글들을 가려 뽑아 엮은 책이다.

지명 스님의 글쓰기는 한 마디로 세간을 향한 벌꿀양이다. 어려운 얘기도 쉽고 재미있게 풀어 써 전하면서 신빙감마저 머무르지 않고 불발의 정수로 과다되는 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동(寺)에서 곧 과일(극락)을 일러주고 있다.



보지형 스님 지음
A5신 264쪽
값 1500원
7월

만해 한용운 한시선

불교계의 큰 별이자 3·1운동의 거점이었던 만해 한용운 스님의 한시 74편을 미당 서경주가 옮기고 각 시편마다 친절한 주석까지 단 책이다.

만해 스님의 빼어난 시인으로서의 면모와 지사로서의 인품에 그윽히 잠겨 있다. 우리 말로 옮긴 시 한 편만 보자.

간 겨울의 꽃 같은 눈 / 울림의 눈 같은 꽃 / 눈도 꽃도 다 하염없을 뿐인 걸 / 여짜고 가슴이 미어지려 하나나, (‘벚꽃을 보며 - 옥중에서’, 122쪽)



미당 서경주 옮김
A5신 264쪽
값 600원
7월

너무나 기독교적인, 하지만 너무도 반종교적인 책들



전각 스님 편을 쓴 이은 옮김
A5신 264쪽
값 7000원 / 출판지리

승산 스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이 재밌도록 이해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포해서 만든 일을 경계할 것을 강조한다. 인생에 혼란을 주고,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인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 책에는 각계각층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다양한 고민거리가 담긴 짙은 편지와 그에 대한 불교적인 해결책들이 담긴 단상이 실려 있다.

이 책을 말한다 『오직 모를 뿐』 외국 수행자들 사이에서 선수행 교과서로 통하는 책.

김종근 기자

육체가 병이 들어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은 병원을 찾아 의사에게 자신의 불편함을 자연스럽게 토로한다. 자신의 불편한 상태에 대해 묻지 않아도 자신의 입장을 열심히 설명한다. 그리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처방을 받고 치료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러나 갈수록 육체적 병보다 마음의 병, 즉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육체적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마음의 병을 치료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자신이 마음의 병으로 정신이 꺾어가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직 모를 뿐』은 인생, 일, 가족, 인간 관계, 출가 수행 등 정신적 고통들을 해결하기 위해 편지를 쓰고 그에 대한 해답을 적은 내용들을 모은 책이다. 한 마디로 정신 치료법을 배울 수 있는 책인 셈이다. 화계사 국제선원 전각 스님이 이 책을 집필과 같은 책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훌륭한 의학적 처방이 책에는 환자들이 의사에게 자신의 질병과 불

희업의 길, 생명의 길

진정 ‘사람의 길’이란 어떠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을 담은 도합 스님의 글 모음. 스님이 보여 주는 사람의 길은 곧 희업의 길이자 생명의 길일 터. 그래서 스님은 귀농 학교를 차려 ‘생명의 길’을 닦고 있는 것일까?

이 책은, 정년 불교란 어떤 종교여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준엄한 자기 비판이다. 또한 그 정신은 마땅히 대중 모두의 각성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고육 스님 지음
A5신 264쪽
값 1500원
시간과 공간사

승려와 철학자

승려인 아들과 철학자인 아버지의 대화. 이는 곧 동양과 서양의 대화이기도 하며 불교와 과학의 대화이기도 하다.

카트만두를 걸어보는 의반산장에서 만난 두 사람은 인류역사가 안고온 여러 의문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고도 진지한 대화를 나눈다. 불교의 정제성(종교나 철학이나), 종교인과 속인의 구도 방식, 진보와 진정함 의미에 대한 대화...

삶에 관한 진지한 성찰이 담긴 아주 독특한하고 흥미로운 대화록이다.



장 르방루아 지음 / 미타유 리키로 중역 / 이은 옮김
A5신 264쪽
값 1500원
7월

산하여 나의 산하여

‘백두산과 민진보’의 시인 고은의 눈과 가슴을 통해 들어온 한반도 위쪽의 풍광. 시인 특유의 감성과 해박한 지식 그리고 역사적 상상력이 만나 이른 북한 순례기. 그리고 그것은 동강산 국토에 맺힌 한을 달래는 해원(解怨)의 노래이자 통일(統一)의 열망(熱望)이기도 하다. 또한 기행문이 갖춰야 할 기록성과 현장성에도 충실하므로 감동과 정보를 함께 얻을 수 있다.



고은 지음
A5신 264쪽
값 800원
출판지리

화이트 헤드의 유기체 철학과 불교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면서 하버드 대학의 철학 교수로 활동하기도 한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 헤드(1885~1975)의 유기체 철학을 불교 사상과 이론으로 설명한 책. 저술 목적이 화이트 헤드 철학 연구에 있는 건 아닌 만큼, 유기체 철학과 불교의 비교 고찰이라고 보는 것이 이 책의 정확한 성격이다.

우주 전체는 서로 어울려서 새로운 창조를 창조한다. 는 화이트 헤드의 우주론이, 불교가 펼쳐 보이는 진리의 지평 어디에서 만나는가를 밝히고 있다.



무비 스님 지음 / A5신 264쪽
값 600원 / 불일출판사

다시 보는 팔만대장경판 이야기

대장경이 아니라 ‘대장경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만든 책. 대장경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담은 그릇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책인 셈인데, 그게 무슨 한 권의 책으로 묶을 만한 얘깃거리라고 고개를 갸우뚱할 법도 하지만 그건 오해다. 마치 공룡의 발자국으로 수억 년 전 지구의 모습을 밝히듯, 대장경판이라는 나무를 통해서 팔만대장경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 등을 밝히고 있다.



박상진 지음
A5신 264쪽
값 750원
(주)문음사

민들레를 사랑하는 법

도스토예프스키에서 아프리카 사막의 부시맨에 이르기까지, 자연과 한몸이 이루어 살아간 사람들 또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노래한 자연에 대한 집안 사집.

자신이 시인이기도 한 역은 이는, 이름 모를 이에 의해 지어진 산사의 옛말에 적힌 깨달음의 시를 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인지 시라는 장르가 주는 낯설음에 대한 부담 없이 온종일 시가 전하는 메시지에 다가갈 수 있다. 짧은 시 한 편만 보자. 대지는 / 꽃을 통해 / 웃는다. (‘꽃’ 전문, 라벨 카스, 18쪽)



류사희 지음
A5신 264쪽
값 500원
나무집은시집

스태디셀러 찾아하기

무비 스님 풀이 예불문과 반야심경



무비 스님 지음 / A5신 264쪽
값 600원 / 불일출판사

구름이 무거워지는 계절이다. 앞으로 두어 달 간의 먹장 같은 하늘을 머리에 이는 날들이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 또한 자연이 인간에게 내리는 은총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커져야 할 면지에 질식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여름은 정화의 계절이다. 모든 면지를 날려보내고 씻어내린다.

절단은 절제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절하는 행위야말로 불교 신앙의 근본임을 이르는 말이라 하겠다. 어떤 종교에서는 이를 두고 ‘무상 숭배’라고도 하는 모양인데,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절(禪)은, 부처님에 대한 경배일 뿐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약속(歸依)이요, 자신을 정화시키는 일(懺悔)이며, 자신을 끝없이 낮추는(下心) 행위가기 때문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절에 가면 가장 먼저 부처님을 향해 삼배를 올린다. 예불의 기본이 잘인 까닭이다. 그리고 그것을 좀더 엄숙한 의식으로 다듬은 것이 아침 저녁이나 사시에 올리는 예불이다.

불교 신앙의 골격이라 할 신(信)·해(解)·행(行)·증(證)의 과정을, 적절한 비유와 해박한 경전 지식으로 쉽게 설명하고 있다.

예불 의식의 기본은 예불문의 봉독이다. 가락 또한 유장하여 뜻을 새기지 않아도 절로 웃음을 머미게 한다. 또한 예불문은 삼보에 대한 단순한 찬탄이 아니다. 불법의 높고도 깊은 뜻을 어떻게 받들어 실천에 옮길 것인가에 대한 의지 표명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다면 반야심경은 어떤가. 이에 대해서는 굳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팔만대장경의 응축, 그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법의 의식에서는 반야심경의 봉독이 빠지지 않는다.

따라서 반야심경과 예불문은 몸과 몸짓의 관계를 이룬다. 명목적인 믿음에 빠지지 않을 지혜를 반야심경이 담당하고, 행동이 결여된 맹목적인 믿음을 예불문으로 경계하는 것이다.

모름지기 불자라면 최소한 예불문과 반야심경의 뜻만큼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본이기 때문이다.

이 책 『예불문과 반야심경』이아말로 불자의 기본을 다지려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귀한 책이다. 선(禪) 교(教)를 아울러 닦은 대강적으로 탄허 스님의 법맥을 이어받은 무비 스님의 정철하고도 자상한 가르침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까닭이다. 그래서 이 책은 불교 입문서로도 손색이 없다. 불교 신앙의 골격이라 할 신(信)·해(解)·행(行)·증(證)의 과정을, 적절한 비유와 해박한 경전 지식으로 쉽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윤재익 / 도서출판 여시아문 편집장 yunjh@buddhapia.co.kr

이 책은 이은의 지음이다. 이은은 1974년부터 1978년까지 5년간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향신 수행을 한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의 체험을 통해 느낀 한국 불교에 대한 종합적인 이야기를 책으로 묶었다.

한국 불교의 제도적 구조, 절에서의 일상 생활, 수행 형태, 행차와 이념 및 사 관습들의 활동, 특히 선승들의 활동을 상세히 적고 있다.

강장 만들기, 매주 만들기, 과일 따기 등 절에서의 생활 해결 방법에 관한 부분과 선방의 일과, 선방 예절, 선방 규정, 여러 고법 등 선방 생활은 물론이고, 이를 견디지 못해 절에서 떠나는 승려의 이야기까지 담고 있다.

선승들은 실제로 매일 무엇을 하고, 어떻게 실천적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가능한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애쓰는 지은이는, 승려들이 하는 말이나 글을 통해 한국 불교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선불교가 경전의 권위뿐 아니라 선 교 자체의 가치도 부정하며, 체계적인 조직을 거부하고, 노동을 중시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등 서양에서의 선불교에 대한 기존 인식을 지우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례를 들어 비판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선불교의 특징을 선명하게 그려내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의 승가 생활을 다룬 책이 거의 없는 가운데 나온 이 책은, 여러 분야의 동양학 관련 학자들이나 일반 종교 생활에 관심있는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 사찰의 전통적인 선방 생활을 통해 한국 불교의 특징을 선명하게 그리고 있다.

이 책의 지은이 로버트 버스웰은 1974년부터 1978년까지 5년간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향신 수행을 한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의 체험을 통해 느낀 한국 불교에 대한 종합적인 이야기를 책으로 묶었다.

한국 불교의 제도적 구조, 절에서의 일상 생활, 수행 형태, 행차와 이념 및 사 관습들의 활동, 특히 선승들의 활동을 상세히 적고 있다.

강장 만들기, 매주 만들기, 과일 따기 등 절에서의 생활 해결 방법에 관한 부분과 선방의 일과, 선방 예절, 선방 규정, 여러 고법 등 선방 생활은 물론이고, 이를 견디지 못해 절에서 떠나는 승려의 이야기까지 담고 있다.

선승들은 실제로 매일 무엇을 하고, 어떻게 실천적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가능한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애쓰는 지은이는, 승려들이 하는 말이나 글을 통해 한국 불교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선불교가 경전의 권위뿐 아니라 선 교 자체의 가치도 부정하며, 체계적인 조직을 거부하고, 노동을 중시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등 서양에서의 선불교에 대한 기존 인식을 지우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례를 들어 비판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선불교의 특징을 선명하게 그려내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의 승가 생활을 다룬 책이 거의 없는 가운데 나온 이 책은, 여러 분야의 동양학 관련 학자들이나 일반 종교 생활에 관심있는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여시아문 추천 범공양 도서

- 1 금강산 유림기 - 김동주 편역 / A5신 330쪽 / 전통문화연구회 / 값 10,000원
- 2 금강산으로 가는 울산비취 - 서문성 역음 / A5신 256쪽 / 도서출판 향 / 값 6,600원
- 3 북한 문화유적 답사기 - 최창조 글, 김영수 사진 / A5신 236쪽 / 중앙 M&B / 값 8,000원
- 4 조선시대 선비들의 금강산 답사기 - 남효은 외 저, 김용근 외 역 / A5신 304쪽 / 해안 / 값 10,000원
- 5 금강산 - 유홍준 역음 / A5신 344쪽 / 학교재 / 값 13,000원
- 6 나는 지금 금강산으로 간다 - 김영재, 변경섭, 양승봉 지음 / B6 배판 234쪽 / 김영사 / 값 11,900원
- 7 북한의 지리 여행 - 윤용 지음 / A5신 252쪽 / 문예신책 / 값 7,500원
- 8 북한 불교 답사기 - 정대혁, 신법타 지음 / A5신 326쪽 / 민족사 / 값 5,500원
- 9 읽고 떠나는 국토순례 - 임덕순 지음 / A5신 290쪽 / 집문당 / 값 7,000원
- 10 금강산 이야기 - A5신 192쪽 / 문원북 / 값 7,000원

여시아문 통신

현대불교신문의 불서 정보란 '여시아문'에 선간 소개를 원하는 출판사에서는 보도자료와 함께 선간을 보내 주십시오. 좋은 책이 독자 독자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신내보: 전한나 팩스로 주문하시면 전국 어느 곳이나 우송해 드립니다.
* 800원 이상은 우송료 무료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종로구 전지동 110-33
전화: (02)737-0635, 732-1521
팩스: (02)737-0596

우시는 권: 현대불교신문사 책방 여시아문

— 여시아문 편집부 —

